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3년 2월 27일(월) 15시

장소 : 3층 시민사랑방

의사일정

1.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 | | | |
|-----------------------|-------|-----|
| 1. 위원장 선임 | _____ | 1 면 |
| 2. 부위원장 선임 | _____ | 2 면 |
| 3.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의 건 | _____ | 3 면 |

(15시08분)

○의정담당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의정담당 000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소개,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공무국외연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안건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2차 강릉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오늘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의 건으로 오늘 심사 의결 후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 위원장 선임

(15시08분)

○의정담당 먼저 위원장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5조에 따라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무국외연수심사위(2023년 2월 27일)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000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정담당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된 000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000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000위원님께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

(15시09분)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연수규칙 5조에 따라 전체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000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000위원님, 이의 없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의위원 000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직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강릉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의 건

(15시11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전문위원 000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참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행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보니까 일본과 강릉과의 어떤 연계성이 잘 드러나게 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학교 쪽을 관심 있게 보았어요.

그래서 ‘국제학교 현황 및 외국인 정주 여건을 확인하고 국제학교 유치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런 목적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제학교가 큰 이슈이긴 하지만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대학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전문위원 저희가 이번 국외연수 때 방문하는 성심국제학교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여자들로 구성된 학교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번 국외연수는 의원님들의 의원연구회 활동에 중점을 뒀 국제학교나 청년교육센터, 구직센터 위주로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 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야간 볼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회 활동에 초점을 맞춰 도쿄의 야간관광명소 탐방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더 질문 더 없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의원님들이 국외연수가 거니까 첫 번째 일정에 방문국 의회 방문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되고 이를 계기로 우리가 방문했던 곳에서 강릉시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마지막 날에 도쿄 의회 방문 일정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의회를 제일 먼저 방문한다면 국외연수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을 한번 하시나요?

○행정전문위원 예.

○위원장 그런 것도 하셨으면 여기 일정에다 했다고 서류로 문서화시켜놓으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전문위원 아 그 부분은 계획서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이번 연수의 방향은, 여기에 담긴 연구회 목적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과제로 먼저 선진국을 방문해서 연구해 보고 다음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자 하셔서 이번 국외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네 그런 회의하신 내용이나 브리핑, 토론회 했다는 것을 계획서에 남겨

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 해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위원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저는 대만에 처음 가기도 했고요.

가기 전에 사실 기대도 많았었고, ‘과연 대만 가서 뭘 배워야 할까?’

또 산업위원회에 맞는 내용들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서 꼼꼼하게 질의도 했었고 또 궁금한 부분, 팩트체크도 했는데 저는 늘 그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강릉만의 천혜의 이 좋은 환경과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이걸 살리지 못해서, 관광상품화를 못해서 관광객들이 무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적에도 사실 일본이 대만을 한 50년 동안 지배하면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중공업을 이루었던 그때 당시의 건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원형을 존치하면서 내부만 리모델링을 해서 요즘 우리로 말하는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하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가보니까 우수관로시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우수관로 내부도 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색다른 것도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도로명주소에다, 우수관로에 번호를 싹 달았어요.

그래서 비가 왔을 경우 안 빠지는 부분은 시민 누구나 거기 번호를 대고 “여기가 지금 막혀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보고 왔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일본에 가서 진짜 그런 걸 보고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에 꼭 접목을 시켜서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저는 또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강릉 관광 인원 중 80%가 무박하고 간다는 것이 우리 강릉시로서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얘기 때문에 자주, 오늘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오시는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관광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하나 하는데 지난해에도 늦게 확인 해봤지만 한 1,400명이 강릉을 왔다 갔다하는데 다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그렇게 받아보면 강릉이 경관은 최고지만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랑 기념 선물이 없다. 또 두 번째로는 야관에 볼거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들을 빨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무박관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쿄에 가서 야간관광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일본의 조건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그래도 과감하게 야간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강릉시가 해야 한다!

해서 사람들이 와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관광이다!

오늘도 보니까 집에서 이리 오는데 차가 밀려서 오지를 못해요, 월요일인데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여기 보면, 강릉이 21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생활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저희들은 한 28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아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골프 같은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사치 운동이라고 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니까 강릉시 안에서 상당한 소비를 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행정위원님들이 일본에 다녀오셔서 그런 관광자원 유치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행정위원님들도 부위원장님과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위원장 이번에 다녀오셔서 관로에 변호 매기는 것을 알았으니까 연수 결과로 강릉시의 관로에 변호 매기는 것을 의회에서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관로 하나만 해도 충분히…….

○위원 이번에 제가 대만 가서도 사실 놀랐던 것은요.

대만은 한 70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벌써 지하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옥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악취도 발생하고, 또 용량이 작다 보니까 비가 하루에 갑자기 20mm 이상 쏟아지면 제대로 정화도 안 하고 바로 방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대만이 시스템은 저희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지하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런 문제가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타이베이시가 벌써 70년 전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때 당시 우리 강릉시는 이렇게 못했을까? 앞으로 우리 강릉도 국비 확보가 충분히 된다면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 보고 그랬어요.

○위원장 연수 갔다 온 결과가 너무 좋은데요?

○위원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다음 관광 하나를 했어요.

거기 야간에 풍등 올리는 거,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데 풍등 올리는 거에 테마와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까, 그니까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서 갔더니

대만도 사실 관광지에는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6 공무국외연수심사위(2023년 2월 27일)

말하는 것을 보고, 풍등에다 소원을 적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여기 전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도 양양에서 국제선 다니고 하니까 제대로 된 야간관광상품을 개발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릉에 관광객이 온다면 최소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는 코스별로 관광하지 않을까요? 그날 의원님들이랑 저녁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토론과 질문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이제 심사하도록 하시죠.

(심사)

국외공무심사의 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서를 취합한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